

한 권의 책을 읽다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문득 수만권의 책들이 놓여있는 책장을 생각하다가 조선소가 하나의 도서관이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해보았다. 나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3주 동안에 걸쳐서 내가 근무하고 있는 조선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책과 함께 하는 우리의 삶’이란 주제로 설문지를 만들었다. 설문지에 작성된 조선소 직원들의 생각과 의견을 모두 듣고 난 후에 그들이 책과 함께하는 문화를 더 깊게 보고 이해할 수 있었다. 내가 조선소 책장에서 꺼내 본 책들은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조선소 직원들의 소소한 책 이야기다. 바쁘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차분해 보였고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바다를 닮아가고 있었다. 육중한 기계 리듬 속에서도 몸과 마음은 책을 찾고 그들 곁에는 늘 책 이야기가 있었다. 조선소에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동안 서로 다른 책을 읽는 느낌이 들었다. 그들이 걸어왔었던 삶의 궤적을 책 이야기와 함께 따라가 보니 나도 어느새 책을 한 장씩 한 장씩 넘겨보는 느낌을 받았다.

조선소 노동자의 책문화 동아리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즐겁고, 힐링이 됩니다.

책 모임은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다른 세상으로 여행하는 마음입니다.

책을 가까이하는 이유는 나만의 생각을 빌드업하고 다른 사람과 생각을 나누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을 접할 수 있습니다.



책은 혼자 읽는 게 아니라 함께 읽어가는 것, 책을 통해서 7개의 우주가 만나는 시간

책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는 사내 독서토론회 ‘북렌즈’의 이야기가 흥미롭다. 각기 다른 부서 직원 7명이 모여 2015년부터 다양한 주제와 책을 읽고 세상과 소통했다고 한다. 이들은 한 달에 한 번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보고, 다른 구성원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을 접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코로나가 확산하자 바이러스에서 굴복하고 싶지 않다고 ‘줌(화상회의)’에서 만나고 있다.

이들은 수학, 차별, 난민, 혁신 등 다양한 주제의 책을 투표로 결정하고 회원들이 돌아가며 독서 모임을 진행한다. 구성원들은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으로는 카라반에서 모두 모여서 운치 있는 토론 시집을 읽었던 것이 좋았다고 했다. 거기서 각자 시도 쓰고 1등을 뽑아 선물했었던 추억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북렌즈의 구성원들은 책은 혼자 읽는 게 아니라 함께 읽어가는 거라고 말해주었다.

이들에게 기억에 남는 추천 도서를 물었더니 〈열두 발자국, 〈선량한 차별주의자〉, 〈꽃을 보듯 너를 본다〉, 〈페르마의 정리〉, 〈인간섬〉, 〈팩트폴니스〉 등이 있었다. 이들은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저마다의 향기로 남아있어서 책을 추천하기는 어렵지만 무슨 책이든 읽고 또 좋으면 다시 읽고 천천히 사색해 보라고 했다. 그리고 세상에 나쁜 책은 없다고 그들은 말했다. 그들은 오늘도 책 한 권을 선택해 한 장, 두 장 넘기며 서로 다른 7개의 우주는 그렇게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있을 것만 같았다.

푸른 바다 위에 떠 있는 커다란 배들을 잠시 보고 있으면 조선소의 역동적인 사람들이 모여 움직이는 모습들이 마음 한 곳에 그려진다. 나 또한 바다 곁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전해 들으며 살아가고 있다.

이른 아침, 오늘도 그녀는 여느 때처럼 분주하다.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회사에 출근한다. 생산부서의 예산관리 업무를 맡은 그녀는 워킹맘이다. 보통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일어나 출근 전 1시간 정도 책을 읽고, 회사 점심시간에도 특별한 일이 없다면 독서를 한다고 한다.

그녀가 바쁜 업무에도 책을 찾는 이유를 물었더니 “평소 일과 육아에 바쁘고 힘들지만, 책을 읽는 시간이 유일한 나만의 시간이 된다”라고 했다. 여기서 그녀는 책에서 많은 위로와 힘을 받는다고 한다. 그리고 좋아하는 책을 읽을 때마다 직장인, 엄마가 아닌 나 자신(자아)을 찾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주로 문학(소설)과 에세이를 읽고 있지만, 편독을 피하려고 다른 책들도 읽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그녀의 추천 도서로는 〈어린왕자〉, 〈연금술사〉를 권했다. 어느 누군가는 오늘도 깊은 새벽에 이불을 만지고 자고 있겠지만 그녀는 책의 어느 한 곳을 만지고 있을 것이다.

책을 읽는 시간이 유일한 나만의 시간이 되는 것

나의 성장에 가장 좋은 스승은 독서

나를 움직이고 성장하는 동력이 책이라고 믿고 생각하는 젊은 설계원들을 만났다. 그들은 근무 전 아침 시간과 퇴근 후 시간을 틈틈이 활용하여 독서를 하고 있었다. 별도의 온라인 독서 모임을 통해서 자기 계발, 투자, 경제, 예술, 심리 관련 도서를 읽고 삶의 중심을 잡아가고 있었다.

그들에게 바쁜 업무 중에도 책을 함께하는 이유를 물어보니 "나를 성장시키는 가장 좋은 스승은 독서"라고 한다. 그리고 "요즘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통해서도 지식을 얻을 수도 있지만 잠시 책 속 세상에 머물러 작가와 대화하는 착각 속에 머물게 되는 즐거움과 배움이 더 좋다." 라고 말한다. 특별한 독서습관을 물어보니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책의 주요 부분을 표시하고 다시 꺼내서 복기하기도 한다고 한다.

그들에게서 전해 들은 추천 도서로는 〈돈의 속성〉,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브랜드가 되어간다는 것〉 등이 있었다. 오늘도 그들은 책과 함께 성장하고 그들의 삶의 기둥을 견고하게 다져나가고 있는 듯 보였다. 나 또한 살아 움직이는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의 중심 한 가운데에서 있는 기분이 느껴졌다.

배를 움직이는 주요 장비 부속품 어느 하나하나가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조선소에서는 숨은 곳곳에서 자신의 역할은 톡톡히 해주시는 협력사 직원분들도 있다. 그중에서도 바쁘게 돌아가는 시간의 틈을 이용해 독서 활동을 꾸준하게 해오고 계신 분들을 만났다.

내가 만나본 그녀들은 사내 문서수발을 통해서 설계원들에게 도면을 직접 전달해 주시는 업무를 담당하고 계셨다.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책을 생각하는 마음도 한결 가벼워 보였다. 책은 늘 가까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오랫동안 도서관 모임을 통해서 독서모임을 한다고 했다.

문학 소설에서는 흥미와 삶의 다른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 읽고, 지식과 명상을 알아가기 위해 종교 서적을 즐겨 찾는다고 한다. 평소 바쁜 업무에도 책을 더 가깝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니 가깝게 위치한 회사 정보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녀들은 업무 안에서 느끼는 단순한 한계를 타파하기 위해서 책을 읽고 거기서 생각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느낀다고 한다. 그녀들이 전하는 추천 도서로는 <생의 한가운데>, <빨간머리앤>, <타임투킬>, 법정스님의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싯다르타> 등이 있었다. 쏟아지는 택배와 도면 속에서도 그녀들은 책을 늘 곁에 둬으로써 편안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듯 했다.

책은 업무 안에서 느끼는 단순한 한계를 타파하는 것

저물어가는 겨울 바다 저 끝으로 조선소의 무거운 삶이 바람을 타고 저 멀리 스쳐 지나갔다. 자세한 느낌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책에 관해서 설문을 조사하고 직접 만나본 조선소 직원들의 책에 대한 마음만은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의 삶을 다시 바라보고 세상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키우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었다.

만나고 설문을 받았던 내용을 통해서 그들은 책을 통해서 큰 무엇을 깨닫고 얻으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행 중에 책이라는 동반자가 있다는 것이었다. 나 또한 책에서 어떠한 인생의 진리나 특출나게 잘 살아가는 방법들은 없다고 생각한다. 책을 읽고 개인의 생각을 사유하고 공유하고 있는 조선소 직원들의 모습이 새로운 진리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어둠 속에서도 배 위로 빛나는 불빛들이 매우 빛나 보였는데 내가 그동안 만났던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인광처럼 보였다. 그렇게 하루는 저물어서 누군가의 책의 마지막 장도 넘겨졌다.

